

2026년 인천교구 빈첸시오 6월 월례회의록

1. 회의 개요

일시: 2026년 6월 21일(일) 11:15 ~ 12: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4층 대강당

2. 시작기도 및 영적독서

- . 성령기도문, 복음 묵상,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순서에 따라 바침.
- . 영적독서(이인숙 효주아네스 교육분과장):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으로(첨부 참조)

3. 보고사항

- . 출석: 지도신부님, 교구 임원, 지구장 및 각 본당 협의회장 등 35개 협의회 108명 참석.
- . 재정 보고: 5월말 기준; 수입(4,245,200원), 지출(4,681,790원), 잔액(37,764,932원)
- . 한국이사회 서신:
 - 6월 27일~28일 화성 팜빈 영성센터 한국이사회 워크숍에 인천교구 회장 참석 예정.
- . 사무실 이전: 진행중
- . 지구장/협의회장 워크숍: 5/16(토)~17(일), 장봉도 헤림원. 34개 협의회(107명) 참석
- . 2026년 벌초봉사: 신청접수(7/19~8/28), 깃발작업(9/5~6), 벌초봉사(9/12~13) 일정 확정.
각 협의회 적극적 참여 요청.
- . 임원 개편: 수석부회장(양일남 프란치스코), 부회장(엄미란 로사리아),
김포/강화지구장(우대징 세례자요한)
- . 신입회원 선서 및 기본양성교육: 선서(6개월 이상 활동회원 가능), 양성교육(4/7/11월 진행,
신입회원은 언제든지 수강 가능), 수료증 발급(선서+양성교육 이수자)

4. 안건토의

- 1) 이사회/협의회 재무관리 지침 시행(2026년 6월 21일부, 지침은 회의록과 같이 배포예정)
- 2) 각 협의회 광고가 필요하면 사전에 지구장을 통하여 신청 요망.

5. 신입회원 소개

소속	성명	세례명
부천2지구 중2동	온정아	에밀리아나
	오미자	모니카
	박명애	안젤라
	권향자	엘리사벳
남동지구 간석4동	구영실	세실리아
남동지구 만수6동	김용백	야고보

6. 지도신부님 강론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 비교와 결핍 경계: 타인과의 비교는 내가 갖추지 못한 결핍에 집착하게 만들며,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어 행복을 앗아감. 봉사 현장과 일상 안에서 실패와 좌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
- 유일한 존재로서의 가치: 주님은 우리 각자를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음. 당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늘 마음속 깊이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함.
- 신앙 안에서의 참된 행복: 우리는 이미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풍요롭게 받고 있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세속적인 조건이나 수치에 휘둘리지 말고,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며, 일상의 작은 것에 늘 감사하는 빈첸시안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함.

7. 공지 및 마침기도

- . 후원회비 카드, 성탄카드 및 회원 모집 팸플릿 배부예정(7월 월례회의)
- . 7월 월례회의 일정: 2026년 7월 19일(일) 개최 예정. 신입회원 양성 교육 진행 예정.
- . 마침 기도, 시성 청원 기도 및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

영적독서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으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교구 빈첸시오회 각 지구의 지구장님들, 협의회 회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는 빈첸시오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당한 사람들입니다.

빈첸시오 성인께서는 혼자 위대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걸음을 맞추며, 함께 가난한 이들 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천교구 빈첸시오회도 그렇습니다.

임원들은 협의회가 잘 활동하도록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하고, 지구장님/협의회장님들의 현장 목소리가 있고, 빈첸시오인들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온전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나는 것, 그것이 빈첸시오 성인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성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봉사도 그렇습니다.

잘 준비된 말보다, 한 번 더 찾아가는 발걸음이 더 깊은 사랑이고,
멋진 계획보다, 한 번 더 귀 기울이는 태도가 더 큰 지혜이며,
높은 자리보다, 함께 낮아지는 마음이 더 큰 힘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보여주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방식**을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함께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는가.

임원과 지구장, 협의회장과 활동가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있는가.

이 물음은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공동의 다짐**입니다.

오늘 월례회의를 시작하면서 인천교구 빈첸시오 모두 한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봉사는 성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빈첸시오 성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임원과 지구장과 협의회장 그리고 빈첸시오 활동가,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 보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 빈첸시오 성인이시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